

安肅公 부조묘 중건 봉안례

8월 14일 충북 음성 방축리 묘역하에서



▲ 제사의 일실에 이안한 안숙공 불천위에 환안고유를 행하고 있다.



▲ 안숙공 신주가 제사 일실을 나와 이동되고 있다.

추밀공파 시조후 17세世로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의 4남인 안숙공安肅公 휘 준은 태종 5년, 1405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18세에 종묘서宗廟署 부승副丞으로 처음 벼슬에 나가 사헌부 감찰監察과 형조·호조의 좌정랑佐正郎을 거처며 명철한 예지로 탁배擢拜되어 개성부의 단사관斷事官, 경기도의 경차관敬差官 등으로 파견되고 문종文宗에 의해 승지承旨 지형조사知刑曹使에 발탁 제수되고 이윽고는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정난공신靖難功臣 2등에 책훈되어 안천군安川君에 봉해졌다. 한성부윤漢城府尹, 호조와 이조의 참판에 이어 형조판서가 되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돌아와서 호조판서와 함길도 도관찰사都觀察使로 나갔다가 병환으로 사직하고 들어와서 지중추원사로서 국왕이 이궁離宮에 행차할 때 대궐을 수직하였다.

세조世祖의 은우恩遇가 돈중하여 55세로 졸하자 치조致弔하고 시호를 안숙安肅으로 내렸으며 부조지전不之典의 은명을 내렸다. 부조란 국가에 유공한 인물의 신주神主를 4대 봉사로 제사하는 기간이 지나도 체천遞遷으로 묘전에 묻는 매안埋安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당을 세워 영구히 기신제辰祭를 지낼 수 있게 임금이 특명을 내리는 은전이다. 이를 체천하지 않는 사당이라 해서 부조묘不廟라 하고, 그렇게 체천되지 않는 신주를 불천지위不遷之位라고도 부르며 그러

한 사당을 일반 가묘家廟와 별도로 짓는다 하여 별묘別廟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묘는 예사 부모로부터 고조 부모까지 4대의 신주를 소목昭穆으로 열배列配하는 집안사당가묘에 비해 단대만을 봉안하면서 그 규모가 크게 짓고 단청을 더하여 선현을 제향하는 서원의 사당과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이러한 안숙공의 부조묘는 그 봉사자奉祀者인 종주손宗曹孫의 절사絶嗣와 무후無後로 봉사가 지차손支次孫으로 천이遷移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별묘를 세우지도 못하고 봉사손의 주거에 따라 옮겨가며 수백년 동안 벽감壁龕에 모시는 처지가 되었다. 벽감이란 주택의 벽장과 같은 모양으로 신주를 봉안하는 감실龕室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과거에 없는 집에서는 가묘도 짓지를 못하여 선대 신주를 벽장에 모시고는 그렇게 불렀다.

1968년에 천안지역 성환成歡에 거주하는 후손 권혁동權赫東의 집에서 봉사하던 신주를 당시 유지후손 권효식權孝植·권관식權觀植 등이 의논을 모아 방축리 능안 개현介峴의 재사 우록右麓인 위산강尉山崗의 안숙공 차남부 숙부인 강화최씨 묘소 왼쪽 언덕에 당우堂宇를 지어 처음으로 사당제향을 받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위치가 음습하고 수목이 자라하늘을 가림에 따라 감실에까지 충해가 들고 기와와 재목이 부식했다. 1988년에 차방손次房孫 창수공倉守公 중중에서

현재하여 같은 국내의 재사 동편 부공 문충공 부조묘 왼쪽 아래끝에 이건하고 삼문三門과 담장을 둘러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었다. 그리고는 다시 20년이 지나자 이 이건한 곳의 지반이 참하하고 지붕과 기와가 누수로 퇴락하여 부지가 어렵게 되었다. 도과하기 전에 이를 개보수하는 것이 시급한데 안숙공중중 자체에는 비용을 충당할 제정이나 마련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이곳이 충북도 지정 문화재인지라 도와 음성군 당국에서 문화재 보수유지 예산이 배정되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보수를 시행하려던 차에, 지반의 침하와 건물의 퇴비가 심해 완전 철거하고 중건복원을 하는 편이 오히려 공사비가 덜 들겠다는 진단이 나와 이를 전면 중건하게 되었다. 공사는 문화재건축 전문시공사가 담당하였고 1억여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지난 봄에 공사를 시작하여 여름 우기가 오기 전에 마쳤는데 그 뒷마무리와 조경 등을 끝낸 다음 신주의 환안례還安禮는 8월 14일에 봉행하게 된 것이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사당의 신주를 개현 추원재사 1실에 이안移安하고 있다가 이날 먼저 제사 1실에서 환안고유告由를 행하고 신주를 출주出主하여 중건 사당에 봉환奉還한 다음 전물奠物을 진설하고 봉안고유奉安告由를 행하였다. 그 환안고유문과 봉안고유문은 다음과 같았고 그 헌관은 18대손 권병홍權炳洪 중회장이, 고유문은 필자가 짓고 봉독하였다.

● 환안고유문(전략)

복이伏以 중건기흥重建既訖 묘모공석廟貌孔碩 연길환안涓吉還安 단우감고근고端由敢告 謹告 : 었드려 아뢰건대 거듭 세우는 일을 이미 마치니 사당의 면모가 크게 훌륭해진지라 좋은 날짜를 가려 되돌려 받들어 모시고자 그 말미암은 바를 감히 아뢰고 삼가 고하나이다.

● 봉안고유문(전략)

복이伏以 퇴비복건頽復建 사우중신祠宇重新 자견길신茲吉辰 근봉이환謹奉以還 척강의구陟降依舊 시거시안是居是安 경천필분敬薦茲芬 존령여재尊靈如在 심목애연心目 然 상기소격尙其昭格 계우수휴啓佑垂休 : 었드려 아뢰건대 혈어 기우는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고 사당의 집을 거듭 새롭게 바꾸어 이제 길한 날짜를 가리어 삼가 되돌려 받들어 모시나니 오르고 내리심을 예전과 같이 하옵시며 이에 거하시고 이에 평안하시옵소서. 공경히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옵자니 존령께서 계시옵는듯 마음과 눈에 아련하옵시니 바라옵건대 밝게 이르시옵고 보우하심을 열어 아름다운 복을 드리워주소서.

환안의 행례를 필한 다음 사

당 내정에서 철상에 따른 간단한 음복을 행하고는 권병홍 안숙공중회장의 경과보고를 겸한 인사말을 들었다. 이어 권영위權寧偉 문충공중회장의 경위 설명이 청취되었다. 본디 문화재보수 예산이 배정될 때에 안숙공부조묘 보수는 우선순위에서 후위에 있었는데 음성군의 권영동權寧東 부군수와 협의하여 지붕을 천막으로 가린 상태의 안숙공부조묘를 먼저 손대기로 하고 개보수를 완전 중건으로 하게 된 경위와, 공사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에 와 직접 감리를 한 사실, 그리고 사당 내부 천장의 단청이 부실해 벗겨진 것 등은 우기에 나무가 건조되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을 시공사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추후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었다. 한편 이번 안숙공부조묘의 중건을 계기로 그 경위와 하사詞를 명각하는 중건기문重建記文과 상량문上樑文을 필자가 지었다. 그 전문을 다음에 소개한다.

● 안숙공부조묘중건기安肅公不廟重建記

현조안숙공부군顯祖安肅公府君은 휘諱 준 자字 오미五美 안동권씨安東權氏 시조始祖 고려高麗 태사太師 휘諱 행幸의 십칠세十七世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휘諱 수평守平의 잉손仍孫 국재문정공菊齋文正公 휘諱 보溥의 현손玄孫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휘諱 근近의 계남季男으로 태종太宗 오년五年 일사영오년一四〇五年 팔월八月 육일六日 한양제澳陽第에서 정생挺生하여 오세五歲에 실호失 하고 중형仲兄 문경공文景公 휘諱 제 의 훈육訓育을 받아 십팔세十八歲에 모부인母夫人 마한국馬韓國 숙경택주淑敬宅主의 친양親養을 위爲해 종묘서부승宗廟署副丞으로 출사

出仕하여 사헌감찰司憲監察 봉례랑奉禮郎 형조刑曹와 호조戶曹의 좌정랑佐正郎 개성부開城府 단사관斷事官 경기京畿 경차관敬差官을 거쳐 승지承旨 지형조사知刑曹事에 탁배擢拜되고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정난공신靖難功臣 이등二等到 책훈策勳되어 안천군安川君에 봉封해졌으며 한성윤漢城尹 호조戶曹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어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부명연정趙明燕京하고 돌아와 호조판서戶曹判書 함길도관찰사咸吉都觀察使로서 기관棄官하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연관捐館하였다. 부군府君이 한성소윤漢城少尹에 개성단사관開城斷事官을 역임歷任할 시時에 황고皇考 문충공文忠公의 신도비神道碑를 각수刻豎하려다가 광주廣州의 오포梧浦 추령楸嶺 묘역墓域에 수기水氣가 있음을 발견發見하고 이곳 음죽陰竹의 미법곡彌法谷 개현介峴에 상지相地하여 면봉緬奉하고 치수治修를 필畢하기 전前에 중형仲兄 문경공文景公이 역책易 하니 양천통곡仰天痛哭으로 음죽현감陰竹縣監을 결굴乞屈하여 삼과기三瓜期를 연임連任하며 중형仲兄의 치산治山도 병료并了하였다. 광묘光廟의 권우眷遇가 심중深重하여 이궁離宮 행행시幸行時 대궐大闕을 수직守直시켰으며 문환聞患에 온천溫泉浴과 내의內醫 진약珍藥을 하사下賜하고 문부聞訃에는 철조감선輟朝減膳하고 안숙安肅으로 증시贈諡하였다. 자질子姪을 경계警戒하여 선세先世가 청백淸白으로 문벌門閥이 번창繁昌하였으나 항만亢滿을 두려워하라며 팔세八世가 경상지위卿相之位에 있었다 하여 구세九世가 되는 자제子弟에게 물부勿赴學을 유명遺命하니 이전후二傳後에 문한현면文翰軒冕이 점종상망接踵相望으로 출현



▲ 환안례에서 고유문이 봉독되고 있다.



▲ 중건된 사당에서 신주 환안 후의 봉안례가 거행되고 있다.